

특집 Ⅱ

인도네시아

동남아 6개국 경제동향 및 진출전략(下)

-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

이 원고는 KOTRA 시장조사처에서 제공한 것으로 “KOTRA 해외시장”에 게재된 내용을 전재한 것으로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3개국에 대하여 소개함.

1. 거시경제 지표 변화 상황

가. 경제성장 전망

'99년 10월 대통령 선출 이후 IMF 개혁 프로그램의 성실한 실천을 통한 경제회복의 가시화라는 측면과 정치적 혼란, 지역 및 종교적 갈등 등 부정적 측면을 종합 고려할 때 2~4% 수준의 경제성장이 전망된다.

나. 1인당 GDP

'97년 1인당 GDP 1,088달러 수준에서 '98년 484달러, '99년 490달러 수준으로 급감되었으나 금년에는 515달러 수준으로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다. 인플레이션

'97년부터 '99년까지의 실적은 11.05%, 77.63%, 2.01%로 각각 짍게되었고, 금년에는 5~1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98년 8월까지는 고율의 인플레이션을 보였으나 '99년 이후 RP화 환율안정과 통화량 감소에 힘입어 인플레이션율은 감소했다. 생필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60~600%로 인상되었는데, 특히 생계비는 위기 전인 '97년 3월 대비 대부분 5~8배 인상되었다.

라. 환율

'99년 루피아 환율의 변동 요인은 대통령 선거,

동티모르 사태, Bank Bali 스캔들, 암본 아체 유혈충돌 사태,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국내요인과 대인도네시아 원조공여국의 약속이행, 해외투자유입, 중국 위완화 평가절하 가능성, 美은행 금리 등의 국외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올 환율변동 예측치는 7,000~8,500루피아로 내다보고 있다.

마. 외환보유고

인도네시아의 국제수지는(이자등지급+원금상환)

의 외환지출이(공공차관+외국인투자)의 외환수입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97/'98년 이후 유일한 외환수입원은 공공차관뿐이다.

'97/'98 외환위기 이후 수출증가, 수입급감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으나 외국인 직접투자 급감, 외채상환 부담가중 등으로 공공차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대외의존적 취약구조가 형성되었다. '99년 12월 기준 외환보유고는 165억달러 수준이며 금년 말은 162억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 주요 지출 유형별 GDP 성장률

(단위 : %)

지 출 유 형	'99. 4분기/'99. 3분기	2000. 1분기/'99. 4분기
1. 민간부문 지출	0.64	0.21
2. 공공부문 지출	7.89	3.50
3. 투자지출(Gross Permanent Investor)	11.80	1.81
4. 용역 및 재화 수출	-1.01	1.59
5. 용역 및 재화 수입	-2.87	1.92
GDP 총 계	-0.02	1.98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통계국(CBS)]

● 주요 지출 유형별 GDP 비율 (1998~2000)

(단위 : %)

지 출 유 형	1998	1999	'99. 1분기	2000. 1분기
1. 민간부문 지출	65.13	72.51	73.00	70.79
2. 공공부문 지출	5.50	6.49	5.76	6.73
3. 투자지출(Gross Permanent Investor)	24.56	21.23	19.98	23.71
4. 재고 증가율	-4.61	-8.17	-5.58	-10.15
5. 용역 및 재화 수출	51.16	34.89	33.25	34.62
6. 용역 및 재화 수입	-41.74	-26.95	-26.42	-25.70
GDP 총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통계국(CBS)]

● 주요 산업별 GDP 성장률

(단위 : %)

산 업 부 문	'99. 4분기/'99. 3분기	2000. 1분기/'99. 4분기
1. 농업, 임업, 수산업, 목축업	-10.11	15.26
2. 광업 및 채취산업	-1.89	-0.59
3. 가공 및 제조업	2.82	-1.07
4. 전기, 가스, 상수도	0.94	-3.40
5. 건설	6.31	0.89
6. 상업, 호텔, 레스토랑	1.61	-1.38
7. 운송 및 통신	3.50	2.16
8. 금융, 리스 및 기업서비스	3.03	0.16
9. 서비스	0.29	0.72
GDP 총 계	-0.02	1.98
GDP (Gas 제외)	-0.12	2.20

[자료 : CBS]

● 주요 산업별 GDP 점유비중 (1998~2000)

(단위 : %)

산 업 부 문	1998	1999	'99. 1분기	2000. 1분기
1. 농업, 임업, 수산업, 목축업	17.57	19.48	22.30	18.50
2. 광업 및 채취산업	13.48	10.06	9.06	10.99
3. 가공업	24.06	25.44	24.71	25.31
4. 전기, 가스, 상수도	1.14	1.19	1.10	1.15
5. 건설	6.24	6.56	5.96	7.23
6. 상업, 호텔, 레스토랑	16.90	16.40	16.11	16.10
7. 운송 및 통신	5.25	5.90	6.54	5.81
8. 금융, 리스 및 기업서비스	7.07	6.32	6.12	6.36
9. 서비스	8.30	8.64	8.12	8.54
GDP 총 계	100.00	100.00	100.00	100.00
GDP (Gas 제외)	88.71	90.66	92.19	89.55

[자료 : CBS]

2. 최근 경제 호전요인 및 주요산업 동향

가. 최근 경제 호전요인

황에서도 '99년 4분기 대비 1.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용역 및 재화의 수출입 확대와 소비지출 증가를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올 1분기 인도네시아 GDP는 불안정한 정치상

나. 주요 산업 동향

올 1분기 기준 인도네시아의 경기 호황업종은 농림수산업, 운송 및 통신 등이다.

이와같이 농림수산업의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루피아화 평가절하로 수출 채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3. 구체적인 교역현황 및 외국인 투자동향

가. 대외 교역현황

○ 수출 동향

'99년 1~12월 기간중 산업별 수출동향을 살펴 보면 주요 외화 획득원인 의류는 전년동기대비 27.28% 증가했고, 합판 10.7%, 팜오일 80.7%, 제지류 24.2%씩 각각 증가했으며, 구리, 니켈, 석탄 등의 광업부문은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섬유제품은 32.5%, 가공고무 41.7%, 알루미늄 43.6%, 전기기기 14%, 농업부문은 19.6%의 감소세를 각각 보였다.

○ 수입 동향

'99년의 경우 완제품 소비제품은 22억7천만달러로 전년대비 18.4% 증가했으나 원자재 -8.2%, 자본재 -49.3%로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 감소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비재 중 음식, 음료의 증가폭이 큰 점을 감안하면 내구성 소비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입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음을 알 수 있다.

나. 외국인 투자동향 총괄

'67~'99년간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 누계는 투자조정위원회(BKPM) 승인 기준 7665

건에 2,288억달러(이하 외국인 투자는 승인기준)에 달했다.

연간 외국인 투자는 '95~'97년에는 300억달러에 달했으나 '97년 7월 시작된 IMF 경제위기로 인해 '98년에는 136억달러로 '97년 대비 59.9%가 감소했으며 '99년에는 109억달러로 '98년 대비 19.7% 감소했다.

산업별 외국인 투자 누계를 보면 화학산업 678 억9천만달러, 제지산업 287억4천만달러, 전기·가스·수도사업 183억3천만달러, 철강·금속산업 182억6천만달러, 수송·통신산업 133억8천만달러, 호텔·식당업 113억3천만달러 등의 순으로 천연자원 및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제조업과 인프라 사업, 서비스 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주별로는 서부자바주 672억1천만달러, 자카르타시 338억2천만달러, 동부 자바주 302억1천만달러, 리아우주 246억5천만달러, 중부자바주 138 억4천만달러, 북부 수마트라주 98억5천만달러, 남부 슬라웨시주 73억4천만달러, 동부칼리만탄주 64억2천만달러, 이리안자야주 59억7천만달러, 남부 수마트라주 51억4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섬별로는 자바섬 63.5%, 수마트라섬 21.6%, 칼리만탄섬 5%, 슬라웨시섬 3.9%, 이리안자야섬 2.6%, 기타 3.4%의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외국인 투자 승인누계 현황은 일본 412억5천만달러(1,132건), 영국 381억6천만달러(352건), 싱가포르 209억9천만달러(972건), 홍콩 192억달러(395건), 대만 168억9천만달러(771건), 미국 157억3천만달러(372건), 네덜란드 118억3천만달러(248건), 한국 104억9천만달러(786건), 호주 100억8천만달러(401건), 독일 98억2천만달러 순으로 집계되었다.

우리기업은 '68년부터 산림개발을 위해 진출한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변화동향

연도	주요개정내용
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관련 행정 총괄전담기구(투자조정원 : BKPM) 설립 ** BKPM 기능 : 외국인 투자안내, 인허가 발급 투자 우선분야 선정 등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규제방식 변경(POSITIVE → NEGATIVE)
199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조건하 100% 외국인 투자 허용
199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제한분야의 축소(60개 → 51개) - 투자금지분야 우유, 식용유, 합판, 중장비, 자동차 등에 대한 조건부 투자허용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허가증 발급절차 간소화 - 부동산 소유기한 연장(10년 → 30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융자 허용 - 외국인 투자시 취득허가증 종류 축소(8개 → 4개) - 토지취득 및 건물 설립 절차의 간소화
199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지분소유 상한 확대(49%)
199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금지업종 축소(51개 → 34개 업종)
199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잠정적으로 부여되었던 세금 감면혜택 폐지
199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조건 완화 및 기간연장
199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양도의무 폐지 - 100% 지분 소유가능지역 확대(14개주 → 전국) - 외국인 투자시 최저자본금 규정 폐지 - 합작투자시 지분소유한도 확대(80% → 95%) - 합작투자범위확대(금지되었던 SOC부문중 9개부문 합작투자 허용) - 영업허가기간(30년) 연장수속 간소화
199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금지품목 축소(팜유, 의약품 등 10개)
199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업에 대한 조건부 외자참여 허용(외국인의 100% 지분소유 허용)
199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지향적 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 수출시 부과하던 수출검사료 폐지 • 세관구역, 보세지역, 수출가공지역간 상품교류시 부과되던 VAT 및 수입과정금 폐지
199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과 합작조건으로 외국인의 자국내 경매회사 설립 허용 - BKPM 면허업체 뿐만 아니라 산업무역부, 지방정부 관리 투자업체에 대해서도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대한 면제혜택 확대
199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금지업종 재조정 및 투자금지업종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LM OIL PLANTATION 및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199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법 개정안 의회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에서 영업하는 외국은행에 대한 외자출자규제 철폐(100% 자유화) • 은행설립 인허가권(재무부 → 중앙은행)
199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정 첨단산업분야(22개)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치 발표(최장 8년간)
199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청 승인기관 확대(BKPM → 대사관, 중앙BKPM → 지방BKPM)

이래 '85년 이후부터는 노동집약산업에 진출, 현재 약 400개 업체가 진출중이며, 진출업체중 200여 개 업체가 섬유, 완구, 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에서 활동중이다.

4. 수출확대 마케팅 전략

가. 신규수출 유망품목 적극적 마케팅

금년중 휴대용 전화기의 인도네시아 시장 예상 수요는 '99년에 비해 약 30% 증가한 약 55만대로 예상되는 바, 우리 휴대용 전화기 메이커의 적극적인 마케팅 구사에 따라 수출증가의 여지가 크다.

중저가형(단순기능형)으로 젊은 층을 상대로한 패션폰에 대한 집중적 마케팅 구사가 필요하나 인도네시아 경제 및 국민 소득 수준을 감안시 고급 기종인 다기능적 휴대용 전화기 모델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다량판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이외에도 LG 및 기타 회사가 GSM 방식의 휴대용 전화기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 타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점진적 경기회복으로 인해 완제품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과 함께 전국적 A/S망과 원활한 부품 조달 공급 체계의 사적 구축이 요망되며 수출 회사들의 현지 거래선 및 지역유통망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나.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정부차원의 각종 인도네시아 무역장벽 완화 노력이 요망되고 무역관을 통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시장개척단 활동 지원 및 주재국 덤픽규제 움직임에 대한 정보 입수 및 대처활동과 Project성(건

설, SOC, 에너지관련) 수주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애로에 봉착한 한·인도네시아 구상무역의 조기 개시가 필요하다.

다. 상품 비가격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상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거점별 지역 A/S망 구축 및 부품 공급의 원활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상품에 대한 지방중소도시 소비자에 대한 인식 및 판매제고를 위해 인도네시아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계 유통망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라. 우리 투자기업과 연계한 수출노력 강화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들(봉제, 신발, 완구, 전자)이 주요 원부자재인 섬유류 신발 원부자재, 가죽 모피제품, 유기화학제품(합성수지, 화학원료) 등을 더 많이 우리나라에서 구매토록 동 품목생산 우리 국내 업체와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간 연계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 인터넷 무역 활성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對인도네시아 수출증대에 적극 활용해, 우리 수출기업의 인터넷 쇼핑 상품광고를 강화한다.

바. 프로젝트성 수주활동 강화

금년에도 석유(가스 포함)개발 관련 해양설비 발주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꾸준한 수주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BOT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타

당성을 신중히 조사한 후 진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의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보여 기후 장애나 외부적 쇼크가 없을 경우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1. 거시경제 지표 변화 상황

가. 경제성장

'99년부터 3%를 넘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필리핀에 대해 ADB 및 IMF 등의 국제기구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나. 인플레이션

'98년말 뜻밖의 태풍피해로 비정상적 식품가격이 형성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 가격, 공공요금, 최저임금이 순차적으로 인상되었으나 올초

다. 고용

올 1월 실업률은 전년동기 9%보다 높은 수준인 9.3%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 부문에서의 해고에 따라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확대 추진을 위해 경제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시와 지방간 고용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라. 외환보유

'99년말 목표 147억달러를 초과하고 올말 목표 170억달러를 달성해 총수입 4개월분 상당의 외환을 보유할 것으로 보이며 '99년말 대은행 외환예치액 151억달러의 89%가 거주자의 예금액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 분	1998	1999	2000	
			1~3월 실적	계 획
GNP 성장률, %	0.1(100.00)	3.6(100.00)	3.4(100.00)	4.5~5.5
GDP 성장률	△0.5(95.38)	3.2(95.06)	3.4(94.28)	4.0~5.0
국제수지(US\$ 백만)	1,358	3,839	△506(2월)	1,400
- 무역수지(US\$ 백만)	△28	4,306	731	△233
물가상승률(%)	9.8	6.6	3.2	5.0~6.0 ⁽¹⁾
실업률(%)	10.1	9.7	9.3(1월)	9.59~9.05
외환보유(US\$ 십억)	10.8	15.1	15.8(3월)	17.3~17.7
재정적자(십억페소)	△50.0	△111.7	△22.31(3월)	△62.5 ⁽²⁾
대외부채(US\$ 십억)	47.8	52.2		
해외근로자송금(US\$ 백만)	4,925	6,794		
환율	40.86	39.08	40.64	*41

주) () : 점유율, ① 2000년 4월 조정치, ② '99년 조정치

[자료 : NSCB, BSP] * NEDA 기대치

마. 정부재정

'99년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총 1,117억페소로 '8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PUMP PRIMEING 자금 지출 및 만성적 재정수입 약화에 기인한다. 정부는 금년부터 재정적자감축 중기계획 시행으로 2003년에 균형을 이를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올 재정수입을 18% 증가할 계획이다.

바. 대외부채

'99년말 52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장기채 비율은 88.5%, 공여국비율은 일본 49%, 미국 18.3%로 각각 집계되었다.

사. 국제수지 및 환율

'99년 수출증가로 전년 수준 3배인 3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올 흑자규모는 국제유가 인상, 외국인 주식투자 감소, 폐소화의 약세로 축소될 전망이다. 환율은 올 5월말 1달러당 43.4페소를 기록한 이후 점차 안정되고 있다.

2. 최근 경제호전 요인 및 주요 산업 동향

'98년 이후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개선되는 추세이다.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율을 저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출 및 제조업 생산이 증가했다. 정부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전력, 금융부문 개혁과 전자상거래 법안을 수립했다.

'99년 농업부문의 생산확대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금년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종 반도체, 자동차, 지 및 지제품 부문에서 각각 36.3%, 17.6%, 16.2%의 높은 생산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수입품과의 가격경쟁이 심한 섬유 및 일본, 대만으로부터의 시멘트 수입에 의해 비금속제품의 생산이 각각 13.9%, 10.5% 감소했다.

서비스 부문중 운수, 통신, 광고업 분야가 전년 2배의 성장률을 보였고, 항공운송부문은 3분기이후 회복세로 26.9% 증가했다. 통신부문은 라인증설, 국내장거리통화량 및 인터넷 서비스증가로 9.5% 성장했고, 소매업 및 도매업은 각각 5.1%, 3.3% 증가했으며, 금융부문은 은행의 대출업무 불안정으로 1.5% 성장에 그쳤다.

특히 정부의 경기회복책은 경제성장에 견인 역할을 하는데, 민간건설 부문의 지속되는 침체에도 공공건설 발주를 증가해 정부 지출 증가율을 '98년 2.8%에서 '99년 5.5% 수준으로 확대시켰다.

한편 대통령의 인기도가 하락하고 사회불안요인이 점증되고 있어 비관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주변인물들의 부정부폐 관련등으로 사회적 불만이 야기되고 이슬람 반군과의 협상 차질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있으며, 대만과의 항공협정 마찰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시장경기 침체, 이자율 인상, 환율 상승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 비관적 요인도 많이 존재한다.

3. 구체적인 교역현황 및 외국인투자 동향

가. 무역수지

'73년 수출 18억3,700만달러, 수입 15억9,600

만달러로 2억4천만달러 흑자 기록한 이후 '99년 전자('96년 100억달러 → '99년 210억달러), 기계류('96년 13억달러 → '99년 50억달러) 등의 경이적 수출증가에 힘입어 26년만에 처음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단위 : US\$ 백만)

구 분	1998	1999	2000	
			3월말	연간계획
무역수지	△28	4,306	731	
- 수출	29,496	35,032	8,607	40,700
- 수입	29,524	30,726	7,876	

[자료 : DTI]

한편 암코아남, 인텔, 후지쓰, 모토로라 등 반도체업체 공장을 확장할 계획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시설 및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유입으로 대체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수입은 유가 인상 등의 요인으로 4.1% 증가에 그쳤다.

나. 지역별 수출입 동향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29.5%), 일본(14%), 대만(8%), 영국(4.9%)이고,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20.5%), 일본(20%), 한국(8.8%), 대만(5.2%) 등이다.

최근 3년간 미국 및 EU 선진제국의 연평균 무역흑자증가율은 200%에 달했다. 아시아지역 무역적자가 '97년 82억1천만달러에서 '99년 10억8천만달러로 축소되고, 대아시아지역 수출도 크게 증가해 무역불균형도 대폭 개선되었다.

다.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수출 동향

'99년 전자 관련제품은 전년대비 23.5% 증가했는데, 주요 수출상품인 반도체는 '98년에 7.1%, '99년에 8.1%씩 각각 증가했다. 전기, 기계는 '98년에 17.5%, '99년에 9.2%씩 증가한 반면 의류는 6% 감소했다.

기타 IGNITION WIRING SET, 동 BAR/ROD, 새우, 바난, 트랜스미션기기, 파인애플통조림, 코코넛, 액화석유가스, IRON, CORE CONCENTRATE 등 품목의 수출이 증대되었다.

금년 1분기중 수출은 14.7% 증가했는데, 주요 수출상품은 반도체로서 '99 3/4분기 이후 15.5% 상승했다. 의류는 총 수출의 11.7%를 점유하고, 18.5% 증가율을 달성했다.

이밖에 전기기계 등 수출은 10.5% 줄었고, 전통 수출상품인 농수산물, 광물 및 경공업제품(신발, 공예품) 등도 감소했다.

○ 수입 동향

'98년 전년대비 18.8% 감소했으나 '99년 4.1%(12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연료수입이 4억달러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감소품목은 광물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로 2.5%, 전기 기계, 기구 장치는 28.2%, 기타 기계가 23.5%씩 각각 감소했다.

금년 1분기중 유류가격 인상 등에 따라 총수입액이 9.2% 증가했고, 연료제품 및 유류 등이 11.4%, 기계류 5.4%, 금속이 11.4%씩 늘었으며, 18개월간 계속 감소해온 위탁가공수입도 7.1% 증가했다.

라. 국별 대필리핀 투자 현황

대필리핀 투자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에스트라다 정부에 대한 불신감으로 감소하고 있다. 타 후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활발한 노동 운동 등도 기존 투자 기업의 추가 투자 및 신규투자 기피 주요요인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단위 : 백만페소)

구 분	'98	'97	증감율
호 주	407	21	△94.9
버진아일랜드	13,880	52	△99.6
프 랑 스	121	526	335.2
독 일	2,850	3,029	6.3
홍 콩	25,540	90	△99.6
이 탈 리 아	30,412	3,517	△88.4
인도네시아	9	-	△100.0
일 본	43,864	12,203	△72.2
한 국	442	537	21.7
말 레 이 시 아	231	389	68.9
네 딜 란 드	710	0	△100.0
중 국	67	149	123.6
싱 가 포 르	9,221	2,025	△78.0
스 웨 텐	80	5	△94.1
스 위 스	1,322	205	△84.5
대 만	1,247	748	△39.9
태 국	4,783	1,775	△62.9
영 국	585	13,599	2,224.1
미 국	16,917	8,895	△47.4
기 타	18,885	58,970	212.3
총 계	171,570	106,740	△37.8

[자료 : NSCB(BOI, PEZA, CDC, SBMA 등록 기준)]

4. 한국산업 진출 동향

가. 수출입 실적

양국은 상호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필리핀은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이고 한국은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필리핀의 제5위 교역대상국이다. '96/'97년 개발붐에 편승한 자본재 수요증가, 투자진출기업의 경영 활성화에 따른 원부자재 반입 증가 등으로 30~40%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다 필리핀 경제침체 영향으로 '98년부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위 : US\$ 백만, %)

구 분	'97	'98	'99	2000 (5월)
수 출	2,601 (36.5)	2,832 (8.8)	3,128 (10.5)	1,372 (18.3)
수 입	704 (21.1)	807 (14.6)	1,158 (43.4)	717 (69.4)
무역수지	1,897	2,025	1,970	655

[자료 : 한국 관세청 무역통계]

나. 주요품목별 대필리핀 수출 동향

'99년의 경우 철강제품, 일반기계 및 유류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출이 증가했는데, 건축경기 악화와 설비투자 부진이 철강제품과 일반기계 수출 감소의 주요요인으로 각각 작용했다.

'99년 전자부품 수출비중이 56%에 달하는 등 매년 동 품목이 수출 증가세 유지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데, 소수품목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

● 주요품목별 대필리핀 수출 동향

(단위 : US\$ 백만)

구 分	1999		2000(5월)	
	금 액 (점유율)	증 감 률	금 액 (점유율)	증 감 률
10대상품 합계	2,709(86.6)	9.3	1,171(85.3)	*
전자부품	1,753(56.0)	13.7	588(42.9)	-13.0
- 반도체	(1,585(50.7))	(7.9)	(520(37.9))	(-16.1)
직물	166(5.3)	4.5	79(5.8)	15.0
- 인조장섬유직물	(53(1.6))	(-0.2)	(30(2.2))	(39.3)
철강제품	112(3.5)	-25.2	59(4.3)	62.4
- 철강의판	(78(2.4))	(-16.6)	(35(2.6))	(49.1)
유류제품	118(3.7)	-21.0	118(8.6)	591.7
- 경유	(81(2.5))	(-11.1)	(114(8.3))	(651.1)
유기화학품	156(5.0)	16.2	72(5.2)	30.0
- 석유화학제품	(136(4.3))	(15.8)	(62(4.5))	(29.6)
수송기계	120(3.8)	4.5	50(3.6)	14.4
- 자동차	(100(3.1))	(137.7)	(41(3.0))	(7.7)
일반기계	73(2.3)	-13.3	54(3.9)	114.9
- 기타기계	(33(1.1))	(38.1)	(30(2.2))	(177.7)
플라스틱제품	66(2.1)	17.0	30(2.2)	15.2
- 기타플라스틱	(57(1.87))	(18.8)	(26(1.9))	(18.0)
산업용전자	93(2.9)	97.8	102(7.4)	358.1
- 무선통신기기	(72(2.3))	(111.2)	(85(6.2))	(542.2)
기타 비철금속과	49(1.5)	24.3	19(1.4)	4.3
- 동 및 동제품	(35(1.1))	(13.4)	(13(0.9))	(-8.2)
수 출 총 계	3,128(100.0)	10.5	1,372(100.0)	18.3

[자료 : 한국 산업자원부 통계]

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한국에서 공급량을 감소시켜 수출이 감소한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양호한 상태이다.

다.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

아시아 외환위기로 대폭 감소후 '99년 들어 다

소 회복했으나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투자의 대부분은 가공수출을 위한 제조업 분야이다.

● 한국의 연도별 대필리핀 투자

(단위 : 백만페소)

구 분	'94	'95	'96	'97	'98	'99
금 액	803	3,974	2,184	2,110	442	537

5. 수출확대 마케팅 전략

가. 진출상의 문제점

신기술 적용산업이 매우 적고, 대부분의 기업이 최소 자본투자를 선호한다. 환경, 기술보호 등 관련규제 및 준수 미흡하며, 제품 수요증이 특정 소수에 한정되어 구매력이 거의 없다.

나. 진출 방안

소량 진출을 강화해 시장을 선점하고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적정 판매시기, 판매상품 예전을 통한 장기적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접근적 판매방식을 채택해 '80년도 소개된 이후 26개사로 증가한 Filway 등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홍보 판매를 구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규 소비자 밀집지역으로 부상하는 Green Hill 소재 Flea Market 등을 활용하고, 상품판매의 약 80%를 점하는 쇼핑몰 체인점을 대상으로 한 위탁 판매를 추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지 합작생산 투자 진출로 가격경쟁력을 강화해 Pioneer 기업분류에 따른 인센티브 수혜를 향유하고, Asean 및 선진국 관세 혜택으로 수출경쟁력 강화하며, 저렴한 영어구사 숙련 프로그래머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1. 거시경제 지표 변화 상황

가. 경제성장률

'90년대 연평균 9%대의 고성장을 지속해오던 베트남 경제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98년 5.8%, '99년 4.5%의 저성장을 기록했다. 올 들어 주변 동남아국가들의 경기회복 및 베트남경제 상황의 호전으로 인해 금년 1~4월 경제성장률은 5.8%로 경제는 성장상승국면에 진입했다.

나. 산업생산

'90년대 이후 연평균 15% 이상을 기록하던 베트남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97년부터 국내 및 해외시장의 수요침체, 공산품가격의 상승 등으로 감소했고, '97년 13.8%, '98년 11.5%, '99년 10.5%를 기록했다. 올 들어 베트남 제조산업의 주력품목인 신발, 의류 등의 수출증가로 인해 1~4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14.2%를 기록했다.

다. 인플레이션

'98년 농산물 생산감소에 따른 식료품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10%를 기록했던 인플레이션은 '99년부터 베트남경제의 저성장 및 내수침체 등으로 2%로 크게 낮아졌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내수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1~4월 0.2%를 기록했다.

라. 환율

'98년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동화평가절하(약 13%)를 실시했으나 실세 미반영으로 효과가 없자 베트남중앙은행은 '99년 2월 기준의 고정환율제에서 시장수급을 반영하는 일종의 변동환율제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1~4
GDP성장률(%)	9.3	8.8	5.8	4.5	6.0
산업생산증가율(%)	14.1	13.0	11.0	11.5	13.8
연간 인플레이션(%)	4.5	3.6	10.0	2.0	0.2
실업률(%)	5.9	6.0	6.9	7.4	-
환율	11,500	12,000	13,880	13,930	14,080
수출(US\$ 억)	71.0	86.5	93.2	115.2	41.0
수입(US\$ 억)	110.0	112.0	114.9	116.3	44.3
무역수지(US\$ 억)	-39.0	-25.5	-21.7	-1.1	-3.2
경상수지(US\$ 억)	-34.5	-22.5	-12.5	-	-
외환보유고(US\$ 억)	12	14	10	-	-

로 변경해 점진적인 평가절하를 유도, 6월 20일 현재 베트남의 환율은 달러당 1만4,088동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97년 아시아경제위기 이후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에 비해 베트남 동화의 환율이 상대적으로 약 30% 정도 낮은 관계로 수출경쟁력 확보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베트남중앙은행이 평가절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최근 경제호전 요인 및 주요 산업동향

베트남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사회간접프로젝트 시행,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정부가 경기호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Hai Van Pass 지하터널 공사 : 6월부터 착공, 중부지방 다낭(Da Nang)과 후에(Hue) 연결
- Trans High(North-South Highway) : 베트남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게 될 프로젝트

- Dung Quat Industrial Park 건설 : 베트남 균형적인 산업발전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약 1억달러를 투자해 내년까지 건설완료 예정
- 대규모 관계사업 : Song Hinh, Rao Quan, Phu Ninh에 약 4,300~5,700만달러를 투자해 하천제방강화 및 다목적 수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관계사업 계획. 상기예산 이외에도 ODA 자금 등도 동사업에 활용할 예정

3. 교역현황 및 외국인투자 동향

가. 교역 동향

'90년대 이후 매년 수출증가율 약 30%, 수입증가율 40% 이상을 기록하던 베트남의 교역은 '98년 및 '99년 증가폭이 크게 완화되었다.

올들어 베트남의 교역은 수출이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에 따른 원부자재 등 수입도 증가세를 유지하며 1~4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비 33%, 수입은 전년동기비 32%를 기록했다.

◦ 수출 동향

품목별 수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원유, 섬유제품, 신발류, 쌀, 수산물, 커피 등이 주종 수출품목인 태국에 이어 세계 제2위 쌀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에 이은 세계 제4위 커피수출국이기도 하다.

◦ 베트남의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US\$ 억, %)

	1998 (증감률)	1999 (증감률)	2000. 1~4 (증감률)
총교역량	208(4.0)	231.5(11.0)	85.3(34.3)
수 출	93.2(5.9)	115.2(23.6)	41.0(33.0)
수 입	114.9(2.6)	116.3(1.2)	44.3(32.1)
수 지	-21.7	-1.1	-3.2

[자료 : 베트남상의, Vietnam Economic News]

◦ 베트남의 주요 품목별 실적

(단위 : US\$ 백만, %)

품 목 명	1999 (증감률)	2000. 1~4 (증감률)
원 유	2,091(69.7)	909(114.0)
섬 유 제 품	1,747(29.3)	499(16.4)
신 발 류	1,391(39.0)	486(14.0)
수 산 물	951(16.3)	308(41.3)
커 피	585(-1.5)	231(5.9)
쌀	1,025(0.1)	155(-57.0)
죽제, 초경및공예품	168(51.4)	92(84.8)
고 무	147(15.7)	47(14.1)
캐 수 넛	110(-6.0)	33(78.1)
석 탄	96(-5.9)	30(6.4)

[자료 : 베트남상의, Vietnam Economic News]

최근 수출증가 품목으로 원유, 신발류, 섬유제품, 수산물 등이 있으며 1~4월 가장 큰 수출증가 폭을 기록한 품목은 원유로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것으로 전년 동기비 기준 114%나 급증했다.

주요 국별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베트남의 총수출중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비중이 약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으로 금년도 원유, 의류 및 신발류, 수산물 등의 대일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베트남 총수출중 대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에 달했다.

한국은 제8위 수출대상국으로 베트남 총수출 비중에서 약 2.7%를 점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對韓 주요수출품목은 섬유류, 신발류, 수산물, 고무, 커피 등이다.

◦ 베트남의 주요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US\$ 백만, %)

국 가 명	1999 (증감률)	2000. 1~4 (증감률)
일 본	1,786(20.6)	735(97.0)
중 국	859(79.3)	303(79.1)
싱 가 포 르	822(-23.9)	322(44.7)
독 일	654(11.2)	216(34.6)
미 국	504(7.7)	189(111.4)
대 만	682(2.4)	211(20.4)
프 랑 스	355(15.6)	119(17.9)
한 국	320(39.1)	111(40.9)
홍 콩	236(-25.6)	96(66.7)
스 웨 스	262(-5.4)	79(-12.8)

[자료 : 베트남상의, Vietnam Economic News]

◦ 수입 동향

기계류, 직물 및 의류 원자재, 석유제품, 철강제

품, 비료, 의약품 등이 최대 수입품목인데, 특히 기계류 및 플랜트 수입은 베트남 총수입의 약 18%를 차지한다. 최근 수입증가 품목은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플라스틱원부자재, 철강 등이다.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플라스틱 원부자재는 의류의 수출호황, 플라스틱의 국내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가 급증했고, 철강류는 사회간접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수요가 증가했다.

최근 수입감소 품목은 비료, 자동차, 살충제 및 원료 등인데, 자동차는 국내생산으로 사는 자동차 및 살충제 등이 국내생산 증가로 인해 수입대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 베트남의 주요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US\$ 백만)

품 목 명	1998	1999 (증감률)	2000. 1~4 (증감률)
기계 및 플랜트	2,052	2,005(-2.3)	812(37.1)
석유제품	827	1,054(27.4)	577(122.8)
직물 및 의류원 부자재	1,302	1,601(23.0)	376(25.5)
철강제품	524	587(12.0)	234(45.2)
비료	491	464(-2.3)	133(-16.0)
전자제품 및 부품류	135	518(283.7)	216(42.9)
플라스틱원자재	311	346(11.3)	144(31.6)
오토바이 및 부품	351	399(13.7)	155(79.7)
화학제품	379	485(28.0)	85(4.2)
의약품	312	267(-14.4)	82(0.4)
합성섬유	175	194(10.9)	70(33.6)
살충제 및 원료	126	133(5.6)	42(-13.5)
종이류	97	102(5.2)	45(53.9)
자동차	130	89(-31.5)	27(-2.5)
면(cotton)	91	91(-)	30(21.1)
자동차부품	70	77(10.0)	44(100.9)

[자료 : 베트남상의, Vietnam Economic News]

● 베트남의 주요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US\$ 백만, %)

국 가 명	1998	1999 (증감률)	2000. 1~4 (증감률)
싱가포르	2,292	1,883(-17.8)	846(79.8)
일본	1,470	1,477(0.5)	662(58.3)
대만	1,370	1,497(9.3)	553(48.7)
한국	1,423	1,440(1.2)	507(36.5)
중국	511	638(24.9)	326(75.2)
태국	674	556(-17.5)	204(35.8)
홍콩	596	587(-1.5)	198(44.5)
프랑스	381	301(-21.0)	112(3.4)
미국	326	335(2.8)	115(-0.7)
독일	408	270(-33.8)	85(8.5)

● 주요국별 투자동향(1988~2000. 4월말 누계 : 허가기준)

(단위 : 건, US\$ 백만, %)

순위	국 명	건 수	금액(투자비중)
1	싱가포르	235	6,766(18.8)
2	대만	521	5,014(13.9)
3	일본	285	3,892(10.8)
4	한국	239	3,448(9.6)
5	홍콩	209	2,605(7.2)
6	프랑스	104	1,791(5.0)
7	브리티시버진군도	89	1,706(4.8)
8	러시아	31	1,558(4.3)
9	미국	97	1,091(3.3)
10	영국	29	1,046(2.9)
11	태국	85	984(2.7)
12	말레이시아	70	942(2.6)
	기타	411	5,122(14.1)
	계	2,405	35,965

[자료 :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99년도 주요 교역상대국의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싱가포르가 18억8,300만달러(16.2%), 대만이 14억9,700만달러(12.9%), 일본이 14억7,700만달러(12.7%), 한국이 14억400만달러(12.4%), 중국이 6억3,800만달러(5.5%), 홍콩이 5억8,700만달러(5.1%)로 나타났다.

나. 외국인 투자동향

○ 주요국별 투자동향

'88년~2000년 4월말 현재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는 총 2,405건, 359억7천만달러에 달한다. 국별로는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순으로 한국은 총투자액 34억4,800만달러(투자비중 9.6%)로, 투자순위 4위를 차지했다.

○ 분야별 투자동향

제조업, 수출분야투자가 전체투자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한국, 일본의 투자는 제조업

● 주요분야별 투자동향(1988~2000. 4월말 누계 ; 허가기준)

(단위 : %)

순위	분야	비중
1	중공업	18.2
2	오피스빌딩 및 아파트	11.9
3	경공업	10.6
4	호텔 및 관광	10.5
5	건설	9.4
6	수송 및 통신	8.0
7	식품	6.6
	기타	24.8
	계	100

[자료 : MPI]

분야 위주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의 투자는 호텔 및 오피스텔, 신도시 건설, 서비스분야 위주로 이루어진다.

○ 한국의 베트남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는 주로 베트남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섬유,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 중소기업형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건설 등으로 투자분야의 다각화 및 투자규모의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95년 미-베트남 국교정상화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미 우회수출기지로서의 베트남의 역할이 부각되어 베트남에 진출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교역관계정상화가 지연되고 '97년부터 태국에서 축발된 동남아 경제위기가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투자진출도 급감해 '98년 대베트남 투자건수는 총 13건1,300만달러로 '97년 31건 6만9,900만달러 대비 급감세를 기록했다.

'99년에는 한국 경제의 회복세 진입에 따른 여파로 대베트남 투자도 '98년 대비 다소 회복되어 '99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29건, 1만7,4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2000년 1~4월말 투자도 총 10건 19억400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동기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베트남의 투자인센티브 변화

'98년부터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 급격히 감소하자 베트남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99년 7월 1일부로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가격 인하, 베트남노동자 급여 현지화기준 지급, 토지사용인정서 발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센티브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인센티브 조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의 불황지속, 불투명한 미국과의 무역협정 타결 문제 등으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2000년 5월 외국인투자법을 21개 조항을 개정해 투자환경 개선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4.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동향

가. 수출 동향

우리나라는 베트남측에서 볼 때 일본, 싱가포르, 대만에 이은 4위의 교역상대국이다.(‘99년 교역규모 : 17억900만달러) ‘90년 이후 매년 급증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은 ‘97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98년에는 ‘97년 대비 15.1% 감소한 13억6,10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99년 우리나라의 경제회복과 베트남의 대외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주종 수출 품목인 섬유류, 전기, 전자제품, 일반기계류, 신발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대비 6.2% 증가한 14억4,500만달러를 기록했다.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동향

(단위 : US\$ 백만, %)

1998(증감률)	1999(증감률)	2000. 1~5(증감률)
1,361.4(-15.1)	1,445.2(6.2)	722.7(27.0)

[자료 : KOTIS]

2000년 들어서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베트

남의 대외수출호조에 따른 수출용 원부자재 수요 급증에 힘입어 1~5월중 전년 동기비 27% 증가한 772억800만달러에 달했다.

나. 품목별 수출동향(한국상품 진출현황)

대베트남 수출은 섬유류,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전기·전자제품, 일반기계류, 가죽 및 신발류 등의 수출비중이 높다.

섬유류의 경우 한국의 대베트남 최대 수출품목으로 전체수출중 약 26%를 점하고 있는데, 올 1~5월 대베트남 섬유류 수출은 베트남의 섬유제품 수출호조로 인한 현지 제조기업들의 직물 및 섬유사 수입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비 14.5% 증가한 186억600만달러에 달했다.

올 베트남의 사회간접프로젝트 확충에 따라 베트남내 철강제품 수입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1~5월 한국의 대베트남 철강금속제품 수출은 오히려 전년동기비 3.4% 감소한 48억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건축경기 회복으로 한국 철강금속제조기업들이 내수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산 철강금속제품의 가격경쟁력 악화로 대만 및 중국산제품의 대베트남 수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도 1~5월 대베트남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비 26.4% 증가한 60억8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의 베트남 현지생산 확대로 인해 동품목의 수입은 감소(-10.2%) 되었으나 부품수요는 크게 증가해 1~5월 전자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비 22.8% 증가한 2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 베트남의 플라스틱 제품수요는 크게 증가했

●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U\$천, %)

품 목	1997	1998(증감률)	1999(증감률)	2000. 1~5 (증감률)
1. 섬유류	435,123	347,109(-20.2)	396,107(14.1)	186,612(14.5)
- 직물	335,624	263,783(-21.4)	292,481(10.9)	133,517(8.5)
- 섬유사	31,797	37,087(16.6)	43,897(18.4)	21,694(34.6)
- 섬유제품 등	51,834	35,243(-32.0)	39,984(13.4)	20,747(13.4)
2. 화학공업제품	231,456	215,004(-7.1)	214,271(-0.4)	100,134(11.9)
- 유기화학(석유화학제)	160,336	122,848(-23.4)	129,529(5.4)	65,967(19.1)
- 무기화학(비료 등)	27,268	44,826(64.4)	33,444(-25.4)	14,667(-8.1)
- 제약원료 및 의약품	20,301	22,291(9.8)	25,163(12.9)	8,368(16.6)
- 기타화학공업제품	23,551	25,038(6.3)	26,135(4.4)	11,132(1.4)
3. 철강금속제품	214,918	146,730(-31.7)	120,102(-18.1)	48,564(-3.4)
4. 전기전자제품	156,168	134,990(-13.6)	119,884(-11.2)	60,763(26.4)
- 전자부품	80,672	52,994(-34.3)	49,544(-6.5)	23,977(22.8)
- 전기전자제품(가정용)	28,307	28,617(1.1)	24,478(-14.5)	12,195(-10.2)
- 전기전자제품(산업용)	13,615	7,657(-43.8)	8,600(12.3)	5,882(146.1)
- 전선	22,306	31,372(40.6)	22,251(-29.1)	9,231(-4.1)
5. 일반기계류	112,287	90,209(-19.7)	97,314(7.9)	46,202(55.0)
6. 수송기계 및 부품(자동차)	83,200	78,066(-6.2)	98,713(22.6)	66,745(133.2)
7. 플라스틱제품	68,201	66,284(-2.8)	76,645(15.6)	32,086(-0.9)
8. 유류제품(경유 등)	55,945	32,697(-41.6)	30,832(-5.7)	59,925(400.2)
9. 가죽 및 모피제품	56,557	54,872(-3.0)	74,459(35.7)	30,195(-0.6)
10. 신발(운동화 등)	38,545	43,313(12.4)	57,563(32.9)	20,541(2.0)
11. 종이 및 판지제품	31,570	37,135(17.6)	48,506(30.6)	22,249(14.0)
12. 잡제품	31,666	28,091(-11.3)	41,015(46.0)	16,704(2.7)
13. 요업제품(유리제품 등)	22,438	23,916(6.6)	18,865(-21.1)	8,749(38.5)
14. 기계요소, 공구 및 금형	17,197	7,857(-54.3)	12,036(53.2)	5,552(4.6)
15. 신변세화	6,698	5,371(-19.8)	5,871(9.3)	1,947(-25.4)
16. 정밀기계	4,502	7,099(57.7)	6,471(-8.8)	2,923(77.9)
합 계	1,603,126	1,361,397(-15.1)	1,445,179(6.2)	722,771(27.0)

(자료 : KOTIS)

으나 한국의 대베트남 플라스틱제품 수출은 저가의 중국산에 밀려 지난해 동기비 0.6% 감소한 32억100만달러에 그쳤다.

올들어 가장 높은 수출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품목중 하나로 1~5월중 대베트남 수송기계 및 부품수출은 전년동기비 133.2% 증가한 66억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베트남 수송기계 수출의 대부분은 중고차량이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내로 수입되는 중고차량의 대부분은 한국산이라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산 중고차량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5. 수출확대 마케팅 전략

첫째,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원부자재 수출확대가 요구된다.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현지투자기업들이 소요로 하는 원부자재 및 시설재가 총 수출액의 약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확대가 필수적(단순 수출활동은 한계상황)이다.

최근들어 한국경제가 성장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이 베트남에 MFN을 공여한다면 베트남 주요수출품목(운동화, 슬리퍼, 가방, 모자, 섬유류 등)의 대미수출관세는 크게 하락되어 베트남 진출 현지기업들은 호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진출 유망품목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 베트남 공장에서 운영되는 기계의 대부분은 '60년대 전후의 노후설비로 기계류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연간 베트남 기계류 수입실적은 약 20억 달러로 '98년 기준 총 수입액의 약 18%를 점유하고 있다.

베트남 바이어들은 IMF 이후 한국산 기계류, 특히 중고기계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한국의 중고기계류 재고가 거의 고갈상태에 있자 한국산 새기계류를 구매하고 있는데, 한국산 기계류가 경쟁산인 대만산보다 약 30% 이상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유망기계류로 라스틱가공기계(사출기, 성형기, 플라스틱인쇄기), 섬유기계(염색나염기, 가공기), 공작기계(CNC 선반, 밀링), 식품포장기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 중소기업 연계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베트남 진출 경험이 없는 중소제조 기업들은 대기업과 연계, 베트남시장 수출확대를 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중소제조기업은 보유기술을 활용해 생산에만 전념하고 대기업이나 종합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시장정보, 마케팅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진출확대 전략이 요구된다.